〈제3호〉

# 함·즐·함·울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주님의 교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12:5)

96교회 표어
"기억하라"
(전 12:1)

발 행 : 남녀연합선교회 **(본 선교지는 두달마다 발행됩니다)** 1996년 12월

## 새롭게 세워져 감을 준비할 때

김화수 목사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그의 서재의 한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써놓고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을 이 기도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나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어진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할 것만 같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항상 행복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때는 지금 나의 믿음의 자리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그 세움의 자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마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되돌아 보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누구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를,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를 차등으로 나눠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섯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모두가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25:20, 22절에서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동사, '주셨는데,의 영어번역본 NIV는 이 구절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라는 뜻의 ENTRUSTED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들을 믿고서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25:25 말씀의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의 영어번역본 NIV는 이 구절을 '보소서 당신에게 속한 것이 여기 그대로 있나이다,라는 뜻의 'See Here Is What Belongs To You,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그를 믿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에 불과하다고 여김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의 크기에 상관없이 마25:21, 23의 말씀처럼 한치의 차이도 나지않는 동일한 칭찬을 받고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다섯, 둘,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주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믿으시고 지금 내가 가진 그 달란트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십시다.

### / 주님의 교회 인터넷 안내 /

본 교회는 1996년 10월7일부터 오전 예배설교를 극동방송(1188㎑: 매주 월요일 저녁 8시30분)과 인터넷(ID:http://soback.kornet.nm.kr/rcklim)을 통하여 듣고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내용으로는 주일 오전 예배설교, 교회소개, 예배시간 안내및 약도, 구역 성경공부 교안, 새 신자반 성경공부, 선교회 소식(함즐함울), 알림판, 방명록, 해외종교 등입니다.

인터넷 홈 페이지의 알찬 내용과 관심있는 분들의 인터넷팀 구성을 위한 교우를 모집합니다.

---

## 末世를 살고있는 자의 고백

정연희 권사 (소설가)

주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입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도 저는 아직도 기회만 있으면 세상과 벗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시며 저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건만, 저는 집도 크고 옷도 많고 부엌살림도 너무 많아 나그네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될 존재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라 하셨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온데 저는 참으로 많은 경우에 고난이 두려워 선을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사온대 겉으로는 겸손을 꾸밀줄 알면서도 저의 내면에서는 겸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도 않으며 내 눈의 들보는 두고 남의 눈에 티끌만을 트집잡기에 바빠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사온대 잠잘 때에도 염려를 껴안고 잡니다.'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있는 자,라 하셨사온대 욕이 닿지 않는 그늘만 찾아다닙니다. 말세에 고동하는 때가 이르렀건만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선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현장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저는 선교점수가 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의에서 돌이켜 천국입학 허가를 주시는 분은 예수시요, 그 포도나무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생명수를 받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그루터기를 감사할 뿐입니다.

## 기도문

〈10월6일 2부예배 대표기도〉

이희숙 집사
〈서울교대 교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권고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관대 만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 주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심성을 불어넣어주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고 선포하십니까? 주님! 저희 주님의 교회가 무엇이관대 교회란 건물이 아니요, 성도가 모여 사랑과 신실한 믿음을 나누는 나눔의 처소라는 속뜻을 깨닫게 하고 이 세대가 사랑과 믿음의 질보다 건축물의 양적 팽창으로 주께 영광돌리려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십니까? 이제 저희를 미쁘다 여기시고 정신여고 강당 건축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일로 많이 들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물 형상은 정신여고 강당이요, 그 내용은 우리의 성전이라고 은밀한 기쁨을 누리지는 않았는지요. 전 교인이 끊이지 않고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착공전에 이 일을 지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공시까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주님의 교회가 무엇이관대 땅끝까지 전도하고 구제하라는 주님의 성스러운 과업을 깨닫게 하시고 그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은택을 내려주시나이까? 땅끝까지 가서 전도와 구제사역을 하시는 주의 종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사 반가움도 나누고, 그분들을 도구로 손수 일구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환태평양 선교대회에 함께 하사,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모두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주의 종들이 주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의 단을 쌓기 위하여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시온 성가대와 아름다운 꽃으로 예배의 향기를 더하는 손길과 각 부서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지난 한 주간 각자의 마음속에 쌓아올린 바알의 단과 우상들을 허물어 내리어 그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태워 주께 올리는 번제의 제사되기를 빕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순간순간처럼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비오며 아무 공로없는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

## 폐암 선고를 받고…

김영순 집사

94년 11월2일 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입원하였다. 늑막에 물이 가득 찼는데 의사들도 왜 물이 찼는지 원인을 몰라 이검사 저검사를 하는 바람에 내몸은 벌집처럼 되었고, 그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직검사를 위한 특별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날짜는 11월18일로 잡혔다. 떨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몇번이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11월25일 의사가 바뀌면서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혹시나 했던 우려가 현실로 닥쳐오고야 말았다. 늑막의 '흉막암,이라는 폐암 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내 한몸 죽어도 아무 미련 따위는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내딸 '두리,를 어찌할꼬. 그 어린 것을 두고 도저히 먼저 갈 수는 없었다. 울고, 또 울고 몸부림치며 엎드려 기도했다. 주님 당신의 딸이지만 당신이 저에게 주신 자식이오니 저로 하여금 에미의 할일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미 죽음앞에 서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12월말경 이재철목사님 부부가 병실을 찾아주셨다.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기뻤다. 내가 딸 두리를 걱정하자 목사님은 두리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아! 하나님 아버지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딸아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엎드려 울고 또 울부짖는다.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8층 병실에서 가만히 창밖을 내려다 본다.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에 유난히도 불켜진 십자가가 눈에 띄였다. 아,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후면 하늘나라 본향에 돌아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기쁨에 넘치기 시작한다. 여태껏 46년을 살아오면서 한번도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나였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처음 느꼈다. 앙상한 나뭇가지·정돈 안된 지붕·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여진다. 초겨울에 내리는 비, 지난날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제법 부유한 가정에서 8남매의 여섯째 딸로 태어난 나는 말괄량이 운동선수로 자랐다. 고등학교 졸업 당시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해오던 운동을 팽개치고 대신 드럼을 시작했다. 한국보다는 세계를 꿈꾸던 나는 미8군 오디션에 합격하여 70년 월남에서 2년을 지낸 것을 시작으로 동남아, 중동지역, 유럽, 캐나다를 순회공연했다. 85년까지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세상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도 모른채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을 만나 귀국하여 결혼을 하고, 딸 두리가 세상에 태어났다.

항암치료가 시작되는 날,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는 주사방울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피라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긴다. 꼭 살려주신다는 확신과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3일 내내 주사를 맞는다. 구토를 느끼지만 토하지는 않는다. 같이 있는 환자의 권유로 누룽지 한그릇을 비운다.(병원에서 만난 그분은 지금도 연락한다) 하루 세끼를 누룽지로 버틴다. 한달간의 병원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두리와 함께 오순도순 10여일을 보냈다. 나만은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는데 머리가 몽땅 빠졌다. 이까짓것 하면서 이틀후에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두번째 항암치료를 했지만 늑막에 물이 그대로 고여있어 방사선치료를 23번이나 해야 했다. 방사선치료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 가슴속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년 3월 남편은 우리를 병원에 남겨둔채 집을 나갔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방랑벽, 놀음벽으로 수십번이나 집을 나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남편. "아내가 아프니 이젠 설마 가정을 지키겠지"하며 믿었던 남편의 가출에 더 이상 지탱할 힘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고 대신 기쁨과 충만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따금 "웬수 같은 인간, 차라리 죽어없어진다면…" 하는 원망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아침 저녁으로 술취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오게 해 달라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힘과 도움주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 원인제공자

안사무엘 목사

군복무때의 일 입니다. 축구시합을 하다가 공을 잘못 걷어차는 바람에 오른쪽 발등이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으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통증은 더했고 상처부위는 더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발바닥을 땅에 디딜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중대장의 허락을 받아 부대 인근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사는 발등 주위를 여기저기 짚어보면서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 곧 침을 놓을 참입니다. 나는 으레 부어오른 발등과 그 부위에 침을 놓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대로 여러개의 침이 발등부위에 꽂히기 시작했고 잠시후, 의사선생님은 복숭아뼈 주위도 짚어 보더니 그곳에도 침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무릎 주위를 더듬기 시작하면서 여지없이 그곳에도 침을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마디에도 몇개의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맞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의사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다친 부위는 발등인데 왜 침을 발등에만 놓지않고 무릎과 손마디까지 놓나요?" 의사선생님은 "인간의 몸의 신경계통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등의 신경계통과 연관되어 있는 부위에도 침을 놓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한가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의 제공출처는 나에게도 있다는 그저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이유없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잘못이 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잘못은 나로부터 시작했고 아울러 나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앞에 바로 설때 현재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어그러지고 굴절된 모습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 —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이동규 목사

**오늘은 교회창립 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참으로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교회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토록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을 알게하시고 믿게하셔서 이 길을 걷게하신**
**그 처음의 이유조차**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내 안에 긴 숨과 무거움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였건만**
**그것을 당신의 은혜라 말하기엔**
**너무나 거리가 먼 내 삶에**
**다시 또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사실은**
**당신의 의미를 상실한 부끄러운 내 모습에**
**당신 앞에 고개숙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그 처음의 순수와 즐거움**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2천년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감동과 겸손과 헌신의 삶을**
**다시한번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작정하신**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주후 1996년 11월 3일)

LORD'S CHURCH
OF AUCKLAND
교회:Cnr. Mt. Eden
& Windmill Rds. Mt.
Eden(Greyfriars
Presbyterian Church)
P.O. BOX 56582 Do
minion Rd. Auckland
Phone & Fax :(64-9) 630-5570

---

### 구역 달란트 한마당잔치

### 남선교회 체육대회 성황

감사주일 저녁 찬양예배시간에는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이 열렸다. 참여한 성도님들은 평소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사진〉. 이날 일등을 차지한 정립구역의 찬양은 모든 성도들의 심금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삶속에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결단과 헌신을 위한 귀한 감동의 시간이었다.

### 일본 TAMA합주단 연주

12월1일 찬양예배는 일본 다마지역의 주부로 구성된 TAMA합주단을 초청, 연주회를 갖는다.

### 녹색부에서 알립니다

녹색부(부장: 변아경)에서는 공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폐유를 모아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YMCA교육관 부엌에 폐유통이 마련되어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폐유 수집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녹색부에서는 매주 1·2·3부 예배후 커피잔을 씻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오니 한달에 한번 편리한 시간에 봉사해 주실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582국 2861.

제 2·3·4 남 선교회회원들은 지난 10월 20일 2부 예배후 정신여고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발배구·릴레이 경주 등 친선 체육대회를 통하여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사진〉. 바쁜 일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회원들은 모처럼의 휴식과 예수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식을 갖는 즐거운 하루였다.

### 남선교회 헌신예배

남선교회에서는 12월11일 오후 7시 YMCA에서 황진 성도를 모시고 남선교회 연합헌신예배를 드립니다.

### / 교인동정 /

〈이사〉
▲김형규·정원경: 가락동(431국 1627)
▲동일호·민옥선: 일산신도시(0344 916국 8392)
▲박윤성·노명숙: 신사동(3444국 5357)
▲김종석·황경애: 종로구 구기동40 동일빌라 7-301호 (395국 3449)
▲박재정·이경표: 군포시 산본동 (0343 98국 2151)
▲이일자: 안양시 평촌신도시
▲심형수: 길동 (476국 7390)

〈결혼〉
▲차춘화집사 장남 김기동군·이미정양(11월9일)
▲장학수·정경애집사 장녀 인지양(11월30일)
▲이강헌장로·장혜자권사 장남 이요셉군·최현희(11월16일)
▲나삼주·김수자집사 차녀 정혜(10월26일)
▲김영숙D집사 차남 결혼
▲김연수·이경아집사 장남 성하군(11월21일 햇불회관)

〈출산〉
▲김두용·권혁순: 차남득남
▲정일웅·양금숙성도: 차녀득녀
▲유태훈·이화용성도: 차녀 득녀
▲박상호·문영숙집사: 차녀득녀

〈개업〉
▲김소일·김영희: 천인(주) 21주년 창립예배
▲김보애집사: 민속전통음식점〈못잊어〉(514국 4587~8)
▲서치영·이영남: 엔젤스 베이커리 (903국 0660)
▲김명관: 웅진코웨이 정수기 (723국 8335)
▲박시만·신성숙집사: 여의도 파파이스(782국 8804)
▲박동해·송기자집사: 신사동 문구점(판촉물도 취급)(3443국 3587)
▲이대인·조희명집사: 포이동 도리 카센터(578국3405)
▲남장희집사: 강남 중국성 뒤편 자동차 전문 카센터(549국 1224~5)

〈출국〉
▲안중철·김시옥: 뉴질랜드 2~3개월 체류예정
▲안용수·백은순집사: 전가족 영국(12월3일)

〈소천〉
▲박동해집사 모친(11월8일)
▲윤학병성도 장모(10월)
▲안영미집사 모친

---

## 하나님은빌라도까지도용서하셨을까

최상용 집사 (의료선교부장)
〈고려대 의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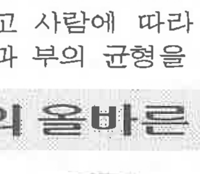
최근 비디오로 출시된 「데드맨 워킹(dead man walking)」이란 제목의 영화에서 살해당한 소녀의 아버지가 살인한 범인을 용서해 주는 장면을 잊을수 없다.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따라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미워만 할 수 없고 그들도 반성하므로 선쪽으로 되돌려 놓을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간 화제가 된 '애인,이란 TV드라마가 종영된 후 한 기업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젊은층 주부의 22%가 이미 애인이 있고 그보다 약간 많은 수가 애인이 한사람 있었으면 한다고 조사됐다. 물론 自我, 超自我가 있어 본능이 시키는대로만 행하지는 않지만 말씀에 의하면 그런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한 것은 율법에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독생자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선 틈만 있으면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있다. 그럼에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잘못을 잊지는 않으신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자를 용서는 해줄 수 있었지만 결코 잊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특성을 가진 인간의 선을 향한 회귀본능일 것이다. 동·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세포 사이의 전해질의 왕래에는 능동적 수송과 수동적 수송이 있다.

수송이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농도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에너지는 필요없다. 그러나 아무리 적고 가벼운 물건이라도 중력을 거슬러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영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우리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적 수송의 좋은 예이다. 능동적 수송은 에너지를 꼭 필요로 한다. 농도 차이와는 관계없이 필요에 의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특성을 닮은 우리들의 용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에너지원(源)인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안될 것이다.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말씀에 의지하면서 서로를 용서하는 훈련을 쌓자.

* * *

## 보약의 올바른 이해



김경빈 집사 (경조부장)
〈인당한의원 원장〉

한방보약을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탄수화물·지방질·무기질·비타민등 필수영양소의 일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단히 열거해보면 한의학은 인체를 소우주로 비유해서 「5장6부」의 상생상극 즉, 장과 부 상호간 추진과 억제의 밸런스에 의해 생명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질병의 원인을 장과 부의 밸런스의 부조화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학과 같이 발병장소에 국한하는 국소적인 치료법이 아니고 발병장소 어디든 병명에 구애됨이 없이 경락을 따라 근본이 되는 장과 부의 밸런스를 체크하여 발병의 근본을 다스려 치료하는 퇴치요법이다. 따라서 어떠한 병이라도 그 근본원인이 장과 부에 있다고 보는 원리인 것이다.

이와같은 관계로 해서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보약이라 함은 약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그때그때의 장과 부의 균형을 체크해서 부족한 곳은 보하고 병적으로 이상항진된 장과 부는 억제하여 생명력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우리몸에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유도하여 몸의 생리적인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보약의 올바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보약으로 인삼과 녹용이 있는데 이는 누구나 복용하면 체력을 도와 건강을 유지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기능면에서 음적인 체질과 양적인 체질로 나누고 다시 소음과 태음·소양·태양등 네가지 체질로 크게 나누며 한약도 그 성과 미에 따라 장과 부및 체질별로 나누어져 있어 같은 병일지라도 선약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한방의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보약의 근본적인 개념은 우리몸의 체력이 부족할 때는 원기를 보해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또 병에 걸렸을 때는 항병력을 도와주어서 병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다.

나는 보약이라는 말의 뜻을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모든 병의 예방약이라고 바꾸고 싶다.